

운명적인 인연

작성일 : 2011. 12. 23. 금. 오후2:07

작성자 : 김기자

[외출하기 전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 그의 사랑에 감사함이 물밀듯이 밀려와 '하나님의 은혜' 찬양을 불렀습니다. 불러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어 계속 몇 번이나 부르고 있을 때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.

주님께서 40일 기도 후 베드로를 전도하시고 빌립을 전도하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. 이 장면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 나다나엘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. 저는 찬양을 다시 했고 마음에는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마음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.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"앉아 기록하라." 하셨습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성경은 모두 다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할 수 없어 간략하게 서술해 놓은 것이 많다.

잘 들어 보아라.

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으니

내가 하나님 대신 화답으로 이리 왔으니

나와 함께하라.

“아멘!”

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전도하고

사기 등등하고 똑심 좋고 힘 좋은

빌립을 전도했다.

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

큰 감동을 받고 똑심 좋은 빌립이

급히 가서 평소 친분 있고

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나다나엘에게

“하나님께서 땅에 오셨다.”라고 전하며

그를 내게 인도하였다.

나다나엘은 내가 택한 자로 그는

무화과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

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자이며

누구보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자였노라.

많은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고

하나님께 경배할 시간이면

늘 혼자 조용하고 경건한 자리를 찾았노라.

그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였고

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았으며

율법책을 읽으며 늘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며

하늘을 수없이 쳐다보고 생각한 자다.

누구보다 하나님을 보기 원했으니

그가 빌립의 말을 듣고 마음과 정신으로

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.

세상 돌아가는 악한 형편을 누구보다

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은

그 작고 볼품없는 나사렛에서

선한 것이 어찌 날 수 있냐고 바로 물었고

똑심 좋은 빌립은 긴 말 하지 않고

“네가 믿기 어려우면 와서 보라.”라고 했다.

나다나엘의 손을 끌고 바로 내 앞에

데려다 놓고 빌립은 그저 싱글벙글하였다.

나다나엘은 정신없이 뭔가에 홀린 자처럼

내 앞에 섰고

나는 웃으며 나의 택한 생명을 보고

너무 기뻐 말했다.

“내 사랑 나다나엘은 그 마음에 간사하고

악한 것이 없도다.”라고 멋있게 핵심만 말하자

나다나엘은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며

“저를 잘 아십니까?”라고 물었고

나 역시 그를 오랫동안 보아 왔기에

“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율법책을 읽으며

하나님 보기를 소망했고

늘 제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

존귀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.”하니

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리며 내게

엎드려 절하며 그는 내게

“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”라고 하며

나를 그 순간 바로 알아보았다.

나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

하나님의 사역 장소로 가기 위해 걸으며

“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큰 것을 보리라.”

하며 우리는 다음 전도 장소로 힘차게 향했다.

그와 나의 만남에 대해 전했노라.

그와 같다.

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과의

1:1 숙명적인 운명의 만남이지만

아담 하와 타락 후 그 운명의 끈에

사탄이 가로막아 서로 바로 알아보기가
어려움에 처해 버렸다.
사랑하는 자들아~,
여러 제자 각 한 명, 한 명이 나다니엘처럼
나와 운명의 인연이었음을 알아라.
섭리사에 부른 각 한 명 한 명 모든 자들이
선생의 끈을 잡고 내게 달라붙게 된
숙명적인 운명의 인연임을 알아.
어느 누구도 그냥 혼자 온 자 없고
또 어느 누구도 사연 없이 섭리사에 온 자 없다는
것을
너희가 알고 선생이 알고
창조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노라.
특히 섭리사 신부들 한 명, 한 명은
나 주 예수가 아주 오래 전부터
인연의 끈 되어 뽑아 왔음을 알아.
너희가 어떻게 섭리사로 왔는지
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.
그리고, 어떻게 지금까지
존재하는지도 생각해 보라.
단순히 사람의 의지로 왔겠느냐?
한 개인의 의지로 오르기에는
너무 높은 섭리 고개이며,
사람의 조건으로 섭리사 가기에는 너무나
많은 조건을 산봉우리 넘듯 넘어야 했던
지난날을 기억하며
너와 나 정말 부부, 애인 인연 맺은 사실이
선생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의 손길과
몸부림에서 너희가 지금 이곳 여기에
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라.

사랑하는 자들아~,
그 한 명 한 명 그 시대 주관권으로
데려오기까지 사명자의 구구절절한
애타는 심정 기도로 인해
각 한 명씩 필연적인 사연 안고
시대로 오게 되었고다.
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
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
그 당시에 이루어 주셨다.
섭리사 오기 전 하나님을 몰라
기도하지 않았어도 너희 각자 처소에서
생각하고 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
이 섭리사로 너희를 옮겨와

때에 맞추어 다 이루어 주고 계신다.
섭리사 신부들 각 한 사람들도
집에서, 학교, 직장에서,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께
때론 하늘을 보며, 창밖을 보며
혼자 남몰래 이야기했던 것을
너희는 시간이 지나 잊고 있을지 몰라도
하나님은 하나도 빼 놓지 않으시고
다 들으셨으며 기억하셔서
거대한 섭리 배에 태워 나를 만나게 한 것이다.
하나하나 따져 생각해 보면
버릴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.
선생을 만난 것도 너희의 운명적인 인연이고
그를 통해 나 주 예수를 만난 것 또한 그러하다.

사랑하는 자들아~,
나 예수가 시대 단상 말씀으로
각 한 명, 한 명에게 매일 매주
말씀을 하고 있으니
그 말씀에 집중하여
너와 나 시대 말씀으로 인연되어
그 사랑 더 성장시키고 있으니
두려워 말고 지쳐 말고
끝까지 주 예수만 보고 함께 가자.
선생이 내 몸 되어 너희를 단계별로
내게 가까이 붙이고 있으니
염려 말고 더욱 선생과 하나 되길 원하노라.
사랑하고 사랑한다.